

대학이 가진 연구성과·특허로 기술 창업

국민·서울과기대, 기술지주사 설립 인가 받았다

출자액 '15억' 고부가가치 기대 문화콘텐츠·VR·빅데이터 등 전문가 양성 등 유치전략 제시

<신규 설립인가 대학 기술지주회사 출자 현황>

/교육부

Table with 4 columns: 학교명, 출자금액 (백만 원) (계, 현금 비율, 현물 비율), 출자기술. Rows include 국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원대학교.

국민대(문화콘텐츠), 서울과기대(가상 현실), 창원대(빅데이터)가 각각 대학이 보유한 연구 성과와 기술을 활용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 서울과기대, 창원대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신규 인가됐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전담 조직으로 학내 산학협력단의 현금이나 기술·특허 등 현물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기술이전이나 자회사 설립과 운영을 통해 영리활동이 가능하다. 이번엔 신규 설립 인가된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이나 특허 등 연구 성과 가운데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이나 기술창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민대는 문화콘텐츠, 서울과기대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창원대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자회사 설립에 나설 예정이다.

대학별로 보면, 국민대는 디자인·방송 등 문화산업 인력과 문화교육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 자회사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과기대는 자회사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투자비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사업화 종합지원 제도인 '창업을 마주보다 프로그램' 계획을 제시했다.

창원대는 '창원대 엔젤투자펀드'를 조성해 자회사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자회사 제품의 매출증대를 지원하는 '판로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자회사 지원

원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1호 자회사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야구) 구단·선수 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구단에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등이 현물출자비율(3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아 단독·공동 설립할 수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대학 기술지주회사들이 적극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양질의 기술창업을 촉진하는 요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의 중점 연구 분야를 바탕으로 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대학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와 국가 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알바생 10명 중 7명 "알바비 올랐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약 반년, 알바생 5명 중 4명이 지난 해보다 오른 급여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의견이 반반씩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알바생 2044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4.3%가 '시간당 7530원을 받고 있다'고 답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이들은 연령대별로 10대(9.1%)가 가장 높았고, 30대(4.6%)도 전체 평균치보다 많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알바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5.6%는 작년보다 오른 급여를 받는다고 했다.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응답은 19.1%, '시급이 줄었다'는 응답은 5.3%였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알바생들이 심감하

는 변화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다'(55.0%)는 응답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다'(53.8%)는 답보다 소폭 많았으나 설문조사 오차범위내였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 그룹 알바생들은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변화(복수응답)로는 '시급 인상에 따른 알바수입'(82.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해도 이전 수준의 수입을 벌 수 있다', '급여 인상에 따른 집중력, 보람 등 알바생 자신의 자세 변화' 등이 나왔고, 이밖에 '야간근무, 연장근무 등 무리한 시간 외 근무 압박 감소', '공고 내 제시 급여 증가 등 근무환경이 좋은 알바 확산', '알바 선택의 폭 증가' 등이 꼽혔다.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 후 느끼는 부정적 변화로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알바 구직난'(69.6%)이 1위로 지목됐다. 이어 '파트타임, 단기 간 위주의 알바가 늘고 오래 일할 알바는 감소', '브레이크타임, 시간쪼개기 등 급여를 덜 주기 위한 꼼수', '업무 강도가 심해졌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알바에 잘려 다른 알바를 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용수 기자

서울시 11개 대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협력

동북4구 대학 산학협력단 참여 일자리창출 상호협력 방안 제시

서울 동북지역 11개 대학 산학협력단이 협력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는 지난 12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동북4구 대학 산학협력단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포럼은 서울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소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협력해 서울시 지역특화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결성됐다.

포럼에는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한성대, 서울테크노파크 등 11개 대학과 1개



서울 동북지역 11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된 '서울시 동북4구 대학 산학협력단장 포럼'이 지난 12일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개최됐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김동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본부장이 '산업기술의 현황'을 주제 발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과 기업 지원 등 대학과 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관 산학협력력 정보를 공유했다.

이동훈 서울과학기술대 연구산학부총장(산학협력단장 겸)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동북4구 대학 산학협력단이 함께 소통하며 다양한 산학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동북4구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채용형 인턴 시동... 공채보다 경쟁률 낮아

올해 하반기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채용 시동이 겹쳤다. 인턴십의 경우 공채보다 경쟁률이 낮은 반면, 정규직 입사도 가능하고 회사와 업무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구직자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3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내주 초까지 LG패션, 롯데호텔제주, 해태제과식품, 웰크론그룹 등이 채용전제형 인턴을 모집한다.

LG패션은 18일까지 정규직 전환형 하계 인턴 채용에 나선다. 모집분야는 사업 부문(MX·영업·e-Commerce), 지원 부문(재무·경영기획·인사·교육) 등이다. 지원자는 7월~8월까지 풀타임 인턴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롯데호텔제주는 19일까지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을 객실, 객실 예약(근무지 서울), 식음 & 연회, 조리, ACE 체험프로그램담당 등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구직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차 후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될 수 있다. 관련학과 졸업자(예정자)와 외국어(영어,중어, 일어 회화) 우수자를 우대한다. 서류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제주도 현지),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해태제과식품은 1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aT가 함께하는 채용연계형 인턴십'을 뽑는다. /한용수 기자

인천재능대 학생·교수가 만든 '웹드라마' 주목

전문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각 학과 실용교육 특징을 활용해 제작한 웹드라마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웹 드라마는 올해 34개국에 참가하는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돼 기대를 모은다.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오는 20일 교내에서 웹드라마 '꿈꾸는 하루 A day, dream.'(각본 이미정, 연출 서석돌) 제작발표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꿈꾸는 하루'는 인천재능대 사진영상 미디어과 교수가 연출을 맡았고 윤다운, 김주하, 이연우, 김재환, 최민정, 유제이 등 재학생들이 배우로 출연했다.

또 뷰티케어과 학생들은 배우들의 메이크업을, 사진영상미디어과 학생들은

촬영 지원을 하는 등 산업현장 직무중심 교육을 구현하는 대학의 특징점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평가다.

촬영을 위해 교수와 학생들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3~4일씩 연기 레슨을 받았다.

드라마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고3 현빈이 누군가 놓고 간 편지꾸러미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하루 동안의 여행을 하는 내용이다.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이 까메오로 출연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담겼다.

제작 발표회에서는 드라마 상영뿐 아니라, 감독과 배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등이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이화여대 BBC 국제시사토론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는 국내 처음으로 영국 BBC 방송사의 유명 국제 시사토론 라디오 프로그램 'World Questions'가 오는 14일 오후 6시 교내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정치, 문화 등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일반인들이 각국의 주요 이슈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면대면 질문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BBC 월드 서비스를 통해 한달간 총 3회 방송되며 전세계 7200만명이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영국문화원(원장 마틴 프라이어)과 BBC 월드 서비스의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프로그램은 '분단된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이화여대에서 개최된다.

별도 통역없이 영어로만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사전 온라인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